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 토론문

김 지 영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 시대의 교육 방향에 대한 관심이 학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고조된 가운데, 이에 대비한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에 대한 발표자의 주제는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다문화 학습자에게만 기울여 온 관심을 일반 학습자에게도 나눌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 출발 역시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문화 시대 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문법 교육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방향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발표문은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일반 학습자의 문법 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능력이 충분치 못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모국어 학습자가 국어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다문화 학습자를 배려하여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

발표자는 ‘문법 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5쪽)’에 대하여 첫째, 둘째 사항으로 각각 탐구 주제로서, 그리고 (다문화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움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또, “문법 지식을 통해 언어적 차이의 극복을 실현(9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 학습자의 어려움을 조사하여 일반 학습자가 이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자는 모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교육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탐구 주제로서, 그리고 의사소통의 도움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을 곁집어 보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언어 체계에 대한 비교나 혹은 대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 문법 교육에서 언어 간 구조나 의미의 차이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토론자는 의사소통의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노력, 혹은 의식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주로 문법 교육에서 담당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 불일치의 해결을 위해 직접 여러 다른 나라의 언어를(혹은 다문화 학습자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또 그것이 국어 교육의 범위에 드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또 오히려 이런 논리라면 국어 문법 교육보다 외국어 교육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정당성이 더욱 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문법 교육의 다문화 교육적 의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역사’ 교과보다 ‘국어생활사’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우리 문화와 교류가 있었던 다양한 문화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5쪽)”이라는 점과 “다문화 학습자의 삶과 가치에 주목할 수 있는 방법(11쪽)”이 된다는 점을 들어 국어생활사의 다문화 교육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생활이나 문화의 변천 과정 자체를 다루는 ‘역사’ 교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교과보다 ‘국어생활사’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이 더욱 의미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3. 상생을 추구하는 문법 교육을 지향할 때 “문법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4. 3.에서 발표자께서는 ‘통일성이 아닌 상생을 추구하는 문법 교육’을 제안하시며 일반 학습자가 강한 민족주의를 배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토론자 또한 이런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언어에 따른 지배 관계와 같은 문제를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다루는 것” 외에 상생 추구를 위해 문법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 교과로서 국어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국어에 반영된 한국인의 삶이나 문화 등에 대해 알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점이 상생 추구의 다문화 문법 교육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질문을 써 놓고 보니, 일관되게도 다문화 시대 문법 교육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물음으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러한 논의가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발표자의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와 방향 제시는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특히 다문화 시대 국어 교육에서 사실상 수적으로 훨씬 더 우세한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표자의 소중한 의견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독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행여 그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한 질문은 모두 토론자의 과오입니다. 감사합니다.